

부산종친회 갑진년 신년 하례 모임



부산 종친회 (회장 권영현)는 지난 1월 10일 18:00 부산 연산동 해암뷔페에서 신년 하례회를 개최하였다. 종친회 원로 어르신과 임원, 단체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하례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시조 태사공께 망배를 드린 후, 참석자 상호 음례로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어서 송산(영현) 종친회장은 내빈 및 참석 인사 소개와 함께 새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한 다음, 새해 인사말을 통하여 종친회장을 맡고 나서 성원과 격려를 보내준 임원, 족친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종친회 원로 어르신과 성용 명예회장을 비롯한 전직 회장님들께서 이룩한 여러 수범적인 성과에 존경을 표하고, 세대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침체되고 있는 종친회를 원로 족친들의 노력과 정신을 본받아, 보다 발전하고 활성화되도록 힘을 모아 줄 것과 주변의 일족들이 종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계속해서 원로 송운(재묵) 고문과 덕산(영운) 천동회장의 덕담 후에 (사)한국성씨연합회 총재인 송계(길삼) 고문은 축사



를 통해 "혁신 자문위원 수입, 부녀회 운영 성과, 상출 대중회 부녀위원장 선임" 등 지난해 이룬 성과를 치하하는 한편, 임원 모두가 중추적인 역할로 종친회 발전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대중회 수석부회장 원광(영호) 고문은 원로 어르신들이 이룩해 놓은 종친회를 잘 이끌고 있는 영현 회장에게 더 큰 격려와 성원을 당부하고, 대중회 수석부회장으로서 부산 종친회 발전에 힘을 보탬 것을 다짐하였다. 아울러 송암(성용) 명예회장은 격려사에서 성황을 이루어 준 족친에 대한 감사 인사와 더불어 종친회장 당시 잘 이끌어 준 원로 어르신과 성원해 준 임원진에

고마움을 표하고, 현 집행부에 더욱 힘을 보태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어진 하례회는 기타 토의에 이어 부녀회 합창단과 함께 관문의 노래를 제창하고, 운산(중원) 자문위원장의 선창에 따른 만세삼창을 끝으로 1부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식후 진행된 2부 행사는 태시 부회장의 사회로 밴드와 함께 여흥 시간을 갖고 참여한 종친끼리 노래와 춤으로 한데 어울려 신명나고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서암(영인) 등산회장이 마련한 기념 타월과 대중회 권영창 회장께서 보낸 화환으로 갑진년 신년 하례회가 더욱 빛났다.

권재영 부산 사무국장

안동권씨 울산청장년회 제16,17대 회장 이취임식

안동권씨 울산청장년회는 지난 1월 21일 저녁 6시 MH컨벤션에서 울산종친회 및 울산지역 7개 친목회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청장년회 제16,17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권응목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혁한 청장년회 고문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식순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청장년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종친들께 공로상 수여가 있었다.

권명달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10년간 청장년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종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제32회 안동권씨청장년 전국 체육대회를 울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어서 권학기 취임회장에겐 안동권씨 울산청장년회 회기가 이양되었고 이에 따라 권오설 신임 사무국장에게 마이크가 넘겨졌다. 권학기 취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청장년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종친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서 오랫동안 청장년회를 이끌어 온 전임 권명달 회장과 권응목 사무국장에겐 공로패를 수여했다. 다음으로 권의호 울산종친회 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권의호 종친회장은 격려사에서 오늘처럼 울산종친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할 수 있는 데는 청장년회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권명달 국회의원(왼쪽), 권의호 회장(오른쪽) 등이 케익을 절단하고 있다.



계속해서 울산동구가 지역구인 권명호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권명호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종친님들의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을 핑계로 울산종친이 함께하는 자리에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며 앞으로는 가능한 자주 찾

아 뵙고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케익 절단과 건배 제의가 있었으며 제2부 행사는 흥겨운 장기자랑과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이. 취임식을 모두 마쳤다.

권응목 울산종친회 총무부장

안동권씨부호장공파 운영위원 회의 개최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회장 권주연)는 1월 22일 오전 11시 안동시 여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 사무국장 등 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 회의를 개

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갑자기 한파가 몰아치는 바람에 운영위원들이 100%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정기총회 개최에 따른 회의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권기운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주연 부호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운영위원 회의가 파종회장 취임 후 마지막 회의인데 그동안 운영위원들이 잘 도와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한 후 "지난번 저의 내자가 상(喪)을 당하였을 때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 고맙다"고 인사했다. 권정수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 간 운영위원 회의를 하면서 위원들의 고뇌와 노력이 있었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오늘

마지막 운영위원 회의를 하니가 세월의 빠름을 실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기운 사무국장은 작년 7월 21일 파종회 소유 밭을 매각하는 등 13건의 경과보고를 하였으며 또 오는 1월 30일 (음력 12월 20일 정일(定日)) 오전 10시 30분 안동종친회관에서 제107회 부호장공파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확정되었다. 이밖에 문중자산 가운데 일부 금액으로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데 이 안건은 차기 집행부에 넘기기로 했다.

회의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시내 서동문로에 위치하고 있는 '농민후계자식당'으로 이동,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돼지불고기와 육회를 곁들여 점심을 먹은 후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특별기고> 권인호(權仁浩, 철학박사, 대진대 명예교수, 한국동양철학회 고문)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43)



본고의 제목에 걸맞는 역사적 시대와 지역(세계평화)을 통관하는 '시대정신의 정화(精華)'이며 정치·

경제·사회·문화의 근본인 철학사상의 실학정신을 논하며,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조망하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룩되기 힘든 과제지만 꼭 달성해야 한다. 국민(시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의 대한민국은 최근민주주의와 삼권분립, 평화통일 등의 헌법기초마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고 본다.

1994년 당시 시점에서 북한과 미국의 체제바 합의(greed Framework;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1994년 10월 21일에 한 외교적 합의였다. 이 합의는 2003년 전격적으로 파기되었다. '북한과 미국 간에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계약', 영어 정식 명칭은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 북미 수교, 북한에 대한 에너지(重油)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한다)는 파탄의 길을 걷고 있다. 북한의 핵을 이용한 '벼랑 끝 외교'를 펼치며 미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불가침조약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다자간 대화를 우선시하며 그 전제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려는 것이었다(이외교 전략의 원조는 미국 R. 닉슨 대통령-H. 키신저 국무장관과 중국 모택동 주석-주은래 총리의 1972.02의 이른바 '핑퐁외교; 상하이 코뮌iqué' 이다. 그 당시 '벼랑 끝 외교전략'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생존전략이었다)

한편 2013. 2. 4일 당시 현재 동해상에서 한미합동해군주력함대의 연합훈련에 돌입하였다. '정례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한미 연합전력을 과시하는 사실상의 무력시위라고

볼 수도 있다. 진보적 사회단체들은 다 음날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박근혜 차기정부 남북대화와 협력, '평화실현 대북정책 촉구 시민단체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한 한중일의 선린우호 관계와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의 평화 증진과 공동의 집'을 구축(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이원덕 옮김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일조각, 2003)하는데 대해서, 3국 및 동아시아 여러 국민 그리고 우리 안동 권씨 문중인, 유학·동양·한국철학을 배우고 연구하며 가르치는 학인(學人)들이 다시 한 번 '철학은 곧 실학'이며 우리가 숨 쉬고 밭 뺨고 있는 이 사회와 정치에 대한 사상과 담론들을 재조명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최근 러시아-우·NATO, 이스라엘-미국과 중동 여러 나라, 아프리카 등지에서 전쟁과 학살, 인종갈등, 난민 등 세계평화가 무산되며 UN의 무력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인홍(鄭仁弘, 1535~1623)은 24세 때(1558) 소과(생원과)에 급제하고 성균관에서를 합격하고 당시(명종)의 외척정치와 과거장 타락상에 실망하고 과거(대과)공부 대신 스승 남명(南鳴)의 영학(靈學)과 유교경서와 제자백가 및 실학적 공부 등에 박학통달 하였다. 39세 때(1573) 탁행지사(卓行之士) 유일(遺逸)로 당시 이른바 '오현사(五賢士)'(서경덕의 제자 이지함, 조식의 제자 최영경과 정인홍, 이황의 제자 조목, 이황의 제자 김천일)의 한 사람으로 이조(吏曹)의 천거로 대과(과과)를 거치지 않고 육품직을 제수 받아 경상도 황간(黃澗, 현 충북 영동군 황간면 태동 주석-주은래 총리의 1972.02의 이른바 '핑퐁외교; 상하이 코뮌iqué' 이다. 그 당시 '벼랑 끝 외교전략'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생존전략이었다)

진정한 유학자는 현실정치를 외면하지 않는다. 만약 끝내 민중과 정치를 외면하였다면, 도교 노장(老莊)의 고사(高士; 신선)나 부도(浮屠·浮圖; 사리묘담) 佛門의 소속불교의 비구승(比丘僧)이라 따름이지 유학자로서 '산림'이라 칭해질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처산림(處山林)하하면 논집정(論執政)하는 태도'를 지니면서도 왕에 의해 정소(徵召)를 받아야 '산림(處士)' 칭호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재야(在野)에서의 정치비판과 참여의 태도 및 권위부여는 종종 시대 일시적으로 사림파가 집권하여 보다 개혁적인 정치질서를 이룩하였으나, 몇 차례에 걸친 훈척파들의 집요한 반격(기묘·을사·정미사화)으로 좌절되었다가 선조 초에 사림파들이 다시 중앙정계에 등장하면 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서울지역종친회 신년 하례회 개최



권영복 회장

실에서 성황리에 갑진년 신년 하례회를 가졌다 이날 날씨가 별로 좋지않고 비가 내리는 우중이었지만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권경탁 사무국장의 사회로 태사공 시조님에 대한 망배와 참석자 상음례로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권승구 명예회장은 인사말에서 참석하신 회원들에게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한다는 인사와 함께 마포종친회는 역사 속에 묻어두고 새마음 새 뜻으로 서울지역종친회가 나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권영복 회장은 갑진년 새해부터 시작되는 서울지역종친회가 청풍의 기를 받아

회원 여러분들께서 진심어린 협조와 관심을 가진다면 더욱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인사를 끝내고 회칙 몇 가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했다. 회의를 마친 일행은 궁덕동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우가촌잡비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식사와 약주를 곁들여 화기에애하게 식사를 마치고 선물로 2만원 상당의 김세트와 회장 취임 기념 타월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임종을 기하여 회장이 직접 쓴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을 1부씩 선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즐거움 설 명절이 되기를 기원했다. 다음 2월 회의는 설 명절 관계로 행사를 하지 못하고 3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권영복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안동권씨 재안파종회장친목회 제22차 격월제 회의 개최

안동권씨 재안파종회장친목회(在安派宗會長親睦會: 회장 권기호) 제 22차(次) 격월제 회의가 1월 26일 오후 5시 30분 안동시 평화9길(평화동) '한정식 청운'에서 회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한 회원은 권기호 회장을 비롯하여 권계동 고문, 권주연 부호장공파 회장, 권세묵 북야공파 회장, 권오준 부호장공파 회장, 권중근 시조공파 회장, 권영건 전 부호장공파 회장, 권오의 대중회 안동 사무국장, 권기원 친목회 사무국장 등 9명이다. 권인담 고문, 권숙동 전 안동종친회 회장, 권오수 동정공파 회장, 권기수 별장공파 회장, 권순협 전 별장공파 회장, 권영택 전 정조공파 회장 등 6명은 개인 불일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권기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기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올해도 몸 건강하시기를 기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기원 사무국장은 2023년 한 해 동안 사용



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결산내역을 상세히 보고 한 후 올해 회비는 은행구조번호를 회원들이 통보하니 그 번호로 송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회칙에 의거 연장자(年長者) 순위에 따라 권주연씨(부호장공파 회장)를 재안 파종회장친목회 제 4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권주연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 해 임기 동안 회를 위하여 열심

히 봉사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격월회의는 3월 22일 금요일이며 장소는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친목회 회의는 격월제로 네 째 주 금요일 모임을 갖는데 회원은 총 15명이다.

회원들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 정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